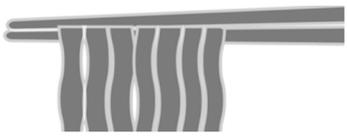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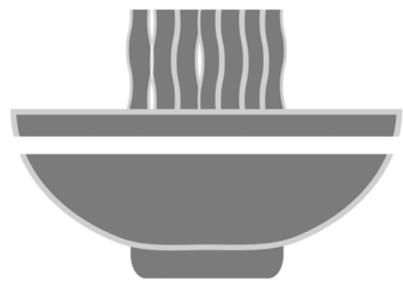


'광주·전남 특' 2016 한 책 ... 김훈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



사발에  
얼굴을  
맞대고  
문학의  
정수를  
맛보다



전남대가 펼치는 범시민 독서운동  
김훈의 산문 중 '밥' 관련된 글 모아  
한책 특 콘서트·한책 토론회 등 열어  
책 읽고 토론하는 소통의 장 마련

"질은 김 속에 얼굴을 들어밀고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 콧 쏘는 조미료의 기운이 목구멍을 따라가며 전율을 일으키고, 추위에 쪼인 창자가 녹는다. 슬프다. 시장가의 근원 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면을 끓이며' 중에서)

한국인들은 매해 1인당 평균 74.1개의 라면을 먹는다. 1년이면 36억 개의 라면이 소비된다. 라면은 우리와는 별레야 될 수 없는 음식이다. 누구나 '짜고, 간단히, 혼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라면이다.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하다. 사교를 겸한 번듯한 자리에서 끼니를 우아하게 해결하는 이도 있지만, 거리에서 혹은 분식집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혹은 모르는 사람과 마주앉아 음식을 듣기도 한다. 고상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이들보다 '목구멍을 쥐어 뜯는' 때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젓가락 삶의 현장으로 가는 이들이 더 많다.

"한 달 벌여 한 달 살아가는" 이들에게 라면은 흔하면서도 애잔한 음식이다. 때가 되면 먹긴 먹어야 하는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라면은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인 것이다.

김훈 작가의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문학동네)가 전남대가 펼치고 있는 범시민 독서운동 '광주·전남이 읽고 토크하다(이하 '광주·전남 특')의 2016한책으로 선정됐다. 전남대는 최근 한책 선포식을 갖고 '2016 한책'으로 김훈 작가의 '라면을 끓이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책 선정을 위한 투표에는 총 3만528명이 참여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광주·전남이 읽고 토크하다'는 그동안 지역에 독서 문화를 뿌리내리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년간 함께 읽을 '한책' 선정 투표를 시작으로 작가 초청 한책 콘서트, 토론회 등을 통해 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지금까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이 번역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공지영 작가의 '높고 푸른 사다리', 한비야 작가의 '1그램의 용기'가 한책으로 선정됐다.

'라면을 끓이며'는 마니아층을 거느린 작가답게 김훈의 특징을 담은 글들이 담겨 있다. 산문집은 애서가들의 사

랑을 받았던 '밥벌이의 지겨움',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 '바다의 기벌'에서 기억될 만한 산문들과 이후 새로 쓴 원고 400매 가량을 합쳐 엮었다.

책은 모두 다섯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밥, 돈, 몸, 길, 글 등이 다섯 개의 주제는 누구에게나 친숙하면서도 필요불가결한 것들이다.

수많은 산문들 가운데 가려 뽑은 데서 보듯, 글은 소설보다 낮고 순한 말로 이루어져 있다. 기자 시절 썼던 글과 가족 이야기, 그리고 동해와 서해의 섬에 들어가 썼던 글들에 이르기까지 김훈의 어제와 오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가운데 '밥'과 관련된 글들은 김훈 산문의 정수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간명함 문제가 빛내주는 인생에 대한 성찰은 한편의 잠언을 읽는 느낌을 준다. 그의 글이 '먹고 살기의 지옥을' 해매는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모든 밥에는 낚싯바늘이 들어 있다. 밥을 삼킬 때 우리는 낚싯바늘을 함께 삼킨다. 그래서 아가미가 켜져서 밥 쪽으로 끌려간다. 저쪽 물가에 낚싯대를 들고 앉아서 나를 건져올리는 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 자가 바로 나다. 이리나 빠도 막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한다. 밥 쪽으로 끌려가야만 또다시 밥을 벌 수가 있다."('밥'1)

이렇듯 김훈은 먹고사는 행위를 대한 비애와 고통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김훈의 글을 읽는 즐거움은 문체의 미학에 있다. '글을 버린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작가는 거주장스러운 수식어를 배제하고 단순한 문장으로 글을 완성한다. 덜어낼 수도, 덧붙일 수도 없는 문장의 힘은 읽는 이로 하여금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글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 김훈 문장에 주눅이 드는 것은 그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

한편 전남대는 앞으로 지역 문인 작품 전시회(7~8월), 작가 초청 한책 특 콘서트(9월), 한책 토론회(12월) 등을 열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10월 중 국내 문화기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062-530-3533.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기발한 대사 유쾌한 무대 '알마의 즉흥곡'

공연 창작소 아라리연  
26일까지 공동예술극장

공연 창작소 아라리연(대표 황민형)이 부조리극 '알마의 즉흥곡'(사진)을 무대에 올린다. 26일까지 공동예술극장(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5~8시, 일요일 오후 3시), 30일~7월2일 씨어터연바람(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5~8시).

'알마의 즉흥곡'은 프랑스 극작가 유진 이오네스쿠가 1956년 발표한 풍자 희극으로, 이번 공연은 황민형 대표가 연출을 맡았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연극 평론가 3명(버르톨로메우스 박사 1, 2, 3)이 이

오네스쿠 작업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연은 시작된다. 박사들은 이오네스쿠가 연극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대가 원하는 작가로 재교육을 시키고자 시도한다. 개인 사상과 신념은 무시하고 사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역동적이며 유쾌하게 보여준다.

황 대표는 "'부조리극은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기발한 대사과 행동으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이오네스쿠 역에는 임성재씨를 비롯해 정남일, 최효주, 최은빛, 손다희씨가 출연한다.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000원. 문의 010-8208-0528.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선율

난치병어린이와 함께하는 광주챔버싱어즈 정기연주회

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난치병어린이와 함께 하는 11회 광주챔버싱어즈(단장 박명심) 정기 연주회가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지난 2007년부터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 환우들을 돕기 위해 연주회를 열어 온 광주챔버싱어즈는 지금까지 총 21명에게 3100만원을 기부했다. 올해도 두명의 어린이를 도울 예정이다.

박호진(광주합창연합회) 지휘자가 함께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 어머니', '하늘보다 높은 사랑', '동심초', '달빛이 꿈꾸는 내 사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게 강같은 평화' 등 다양한 노래를 들려주며 비발디의 '글로리아'도 선사한다.

피아노 반주는 신은정·황인화씨가 맡았으며 오르간 연주자 이수정씨가 특별 출연한다. 그밖에 소프라



박명심 단장 박호진 지휘자

노 오리나·양현애, 메조소프라노 임선아, 더블베이스이합창단(지휘 이상화) 등이 특별 출연. '수선화', '개구리와 올챙이' 등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는 합창단원 36명과 오케스트라 단원 20명이 출연한다. 2004년 창단한 광주챔버싱어즈는 2007 광주전남여성합창경연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08 여성 중창경연대회에서 화폭상을 받았다.

티켓 가격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10-7618-0616.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독립영화 '결혼별곡' 출연 배우 25일 공개 오디션

광주여성영화제

광주여성영화제가 독립영화 '결혼별곡'에 출연할 배우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다.

광주 여성영화제는 작년 6회 광주여성영화제 기간에 진행한 '관객이야기 공모전'을 통해 당선작으로 선정된 영화 '결혼별곡'을 제작하고 있다. 제작진은 결혼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결혼을 앞둔 여성들에 대한 인터뷰를 두 달간 진행했다.

영화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4일까지 메일 (producer\_yoo@naver.com)로 프로필을 보내면 된다. 오디션은 25일 오후 2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2층에서 진행된다. '결혼별곡'은 9월에 촬영에 들어가 11월 열리는 7회 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된다.문의 010-6402-0523.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 손으로 만드는 문화정보서비스 300자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내 손으로 만드는 문화정보서비스 300자 국민 의견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문화 격차 해소 ▲한류 확산 등 5개다. 누구나 문화정보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300자 내외로 의견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가볼 만한 관광지 정보만 모아보고 싶었다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 관광지 정보는

모든 앱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제안하면 된다.

7월20일까지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문화포털 홈페이지(www.culture.go.kr)에 등록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 1명에게는 관광상품권 30만원, 우수상 5명에게는 관광상품권 10만원, 장려상 10명에게는 관광상품권 5만원이 수여된다. 문의 02-3153-2844.

/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 ▶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